

사우디아라비아 인프라협력센터 주요 프로젝트 동향 보고(4월 1~2주)

(단위: USD\$)

□ 정책 및 시장 동향 환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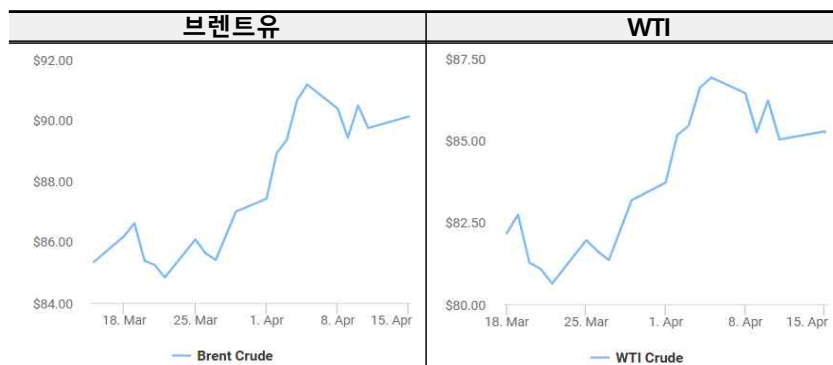
① 환율 및 기준금리 추이

구분	내용	비고
환율	1 USD = 3.75 SAR (Peg system)	(2024.3.26.) Saudi Central Bank (SAMA)
기준금리	6.0 % (전월대비 동일)	(2023.7.26.) Saudi Central Bank (SAMA)

- 사우디아라비아는 사우디 리얄화의 가치가 달러화 가치에 연동되는 달러화 페그제(peg system)를 유지하고 있어 미국의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금리 조정으로 리얄화의 통화가치 유지
- 사우디 중앙은행(Saudi Central Bank: SAMA)은 2023.7.26.일자로 기준금리로 사용되는 Repo Rate를 0.25%p 인상했으며, 이후 미발표 유지중

② 국제유가 동향

구분	유가	변동 (전일대비)	비고
유가	브렌트유	90.12	- 0.36
	WTI	85.22	- 0.55



< 자료: Oilprice.com (2024.4.15.) >

구분	4.1	4.2	4.3	4.4	4.5
Brent	87.42	88.92	89.06	89.25	91.17
WTI	83.71	85.15	85.23	85.37	86.91

※ 기준: Brent (6월 계약분), WTI (5월 선적분)

- 4월 1주차 Brent는 \$89, WTI도 \$85을 상회하면서 작년 9월 이후 지난 5개월간 최고 가격을 기록함.
 - Brent는 1분기 약 16% 상승한바, 이는 예상보다 강한 석유수요 전망, OPEC+의 공급축소, 러시아 및 중동의 긴장상황에 주로 기인
 - 6~7월에는 정유활동이 눈에 띄게 가속화 되면서 향후 유가 지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
- OPEC+는 4.3(수) 개최된 리뷰회의에서 기존 정책을 고수 결정
 - OPEC 산유국들이 개별 쿼터 준수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는 상황인바, 향후 2~3개월 동안 OPEC 산유국의 생산은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

③ 건설시장 동향

- 아랍코 사파니아 코젠 6월로 연기^(MEED, 3.25)
 - MEED는 아랍코가 Safaniya central processing facilities (CPF)에 서비스를 제공할 ISPP (Independent steam and power plant)의 개발·운영에 대한 입찰을 2024.6월로 연장했다고 보도함
 - 2023.4월 입찰을 공고하고 5월에 입찰설명회와 현장답사를 실시했으며, 당초 입찰마감일은 2023.12월 예정이었으나 2024.3월로 연기됨
 - 계획에 따르면, Safaniya CPF는 연료가스, 담수, 증기응축수를 ISPP에 공급해 폐수 처리 예정이며, 설계용량은 증기 500~700 MPPH, 발전 300~400MW로 예상. SWRO 플랜트 용량을 10,000m³/day까지 확장 예정임
 - 동 프로젝트는 BOOT 방식으로 추진되며, 발전소는 2027년 가동 시작, 가동일로부터 25년간 운영 예정임
 - 입찰사는 입찰마감일에 프로젝트의 전체 선순위채권의 50% 이상을

약정 자금으로 제공해야 함

- 일본의 SMBC(Sumitomo Mitsui Banking Corporation)와 미국의 White & Case는 프로젝트 금융 및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독일의 Fichtner가 기술 컨설팅 자문 서비스를 계약함

○ UAE Taqa+[♯]Jera 컨소시엄, 아미랄 코젠 수주^(MEED, 3.28)

- Satorp(Saudi Aramco Total Refining & Petrochemical Company)는 사우디 주베일의 아미랄 석유화학단지 전력공급을 위해 ISPP와 UAE의 Taqa-일본의 Jera 컨소시엄과 구매계약을 체결함
- 아미랄 열병합발전소는 Taqa와 Jera가 각각 51%, 49%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, SPC가 향후 25년간 BOO 방식으로 추진 예정. 해당 컨소시엄이 O&M까지 수행할 예정이며 2027년까지 가동 예상
- 동 프로젝트의 입찰에는 총 3개 컨소시엄이 경쟁했으며, 참여사는 다음과 같음.
 - Acwa Power / Power & Water Utility Company for Jubail & Yanbu (Marafiq) (로컬)
 - 한국전력(한국) / Aljomaih Holding Company(로컬)
- 해당 시설은 약 475MW의 발전용량과 첨단 복합화력 가스연소 기술을 통해 시간당 약 452톤의 증기를 생산할 것으로 예상

○ 삼성물산, 아미랄 코젠 EPC 수주^(MEED, 3.29)

- 삼성물산이 아미랄 코젠 ISPP 프로젝트의 EPC 계약을 Taqa+Jera 컨소시엄으로부터 수주함. MEED Project에 따르면 동 프로젝트엔 4억불 이상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

○ 파드힐리 가스플랜트 확장 프로젝트 계약 체결^(MEED 및 자체조사, 3.28, 4.2)

- 아랍코의 파드힐리 가스플랜트 확장 프로젝트는 기당 5억 cf/d 용량의 프로세싱 트레인 3기를 추가하여 파드힐리 가스플랜트의 생산량을 15억 cf/d까지 확대, 처리용량을 현재 25억 cf/d에서 40억 cf/d로 늘릴 것으로 예상됨
- 쿠르사니아(Khursaniyah) 가스 플랜트에서 남서쪽으로 30km 떨어진 곳에 소재한 파드힐리(Fadhili) 가스 프로세싱 콤플렉스는 2020년 초 가동을 시작했으며, 패키지별로 수주한 EPC사는 아래와 같음

- PKG 1 (Gas processing plant expansion) 삼성E&A
- PKG 2 (Sulphur recovery units, SRUs) GS건설
- PKG 3 (Early civil works) Nesma and Partners
- PKG 4 (Utilities and offsites) 삼성E&A

- MEED에 따르면, 아랍코는 ‘23년 3~4월경 EPC의 입찰 공고, 5.15. 현장답사, 7.15. 최초 제안서 접수 예정이었으나 제안서 제출 일이 연장*되면서 ’ 24년 1분기에 EPC 계약 체결이 있을 것이라 보도한 바 있음

* PKG 1,2는 9.16., PKG 3,4SS 10.14.로 제안서 제출일 연장

- 앞선 보도에서는 동 프로젝트에 GS건설, 현대건설, 삼성E&A, JGC Gulf International 등 4개사가 입찰에 참여중이라 보도됐으며, FEED는 미국의 KBR에서 수행한 것으로 알려짐

○ 네움 두바 에너지 파크 1단계 EPC 패키지 입찰 공고^(MEED, 3.28)

- Enowa는 타북에서 추진하는 Duba Energy Park 1단계의 EPC 및 O&M 관련 입찰을 3월초 공고하여 5.26일까지 접수 예정. 동 프로젝트의 PMC는 미국의 엔지니어링 회사 Jacobs가 수주함
- 현장은 두바와 네움 공항 사이의 고속도로를 따라 기존 380/132/13.8kV Duba Energy Park의 북서쪽에 위치함. Duba Energy Park에는 신규 발전소 2개소 개발 예정으로, 네움에 비상 전력 공급을 위해 설계된 300MW 이동형 가스터빈발전기(GTG)도입이 1단계며, 500MW의 영구설치형 고성능 GTG 도입이 2단계
- 2건의 프로젝트 모두 패스트트랙으로 추진되며, 1단계는 2024년, 2단계는 2025년에 완공이 목표
- 생산 전력은 ‘30년까지 초기 운영에 사용 예정이며, 동 계획은 ‘28년까지 발전소 연료 100% 신재생 에너지 연료 혹은 수소 전환, 10년 내 100% 신재생 에너지를 통한 전력 공급이라는 네움의 목표에 부합함
- MEED는 지난 2월 Enowa가 이미 early works 수행을 위한 입찰을 접수했다고 보도했으며, 계약 범위는 신규 발전소 건설을 위한 부지 정지 작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짐

○ **네옴, The Line 마리나 모듈 건설 우선 추진**^(MEED, 4.2)

- 네옴은 The Line의 170km 연장 평행건물 중 마리나의 모듈 건설을 우선 추진할 전망. 각 모듈은 14~16개의 코어로 구성되며, 모듈별 길이 800m, 높이 500m로, 완공 시 마주보는 2개의 연속 미려건물로 이어질 예정
- 특히 마리나에서 모듈 44, 45, 46, 47, 48에 대한 Raft foundation 프로젝트 상업 입찰을 5.26일까지 접수할 예정임. Raft foundation 프로젝트는 메가 코어라고 불리는 곳에 세계 두 번째 규모인 43,000㎡의 콘크리트 타설을 포함하고 있어, 업체들은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됨.
- 마리나의 파일링 공사는 지난해 착공되었으며, 세계 최대 규모의 굴착공사임. 매주 1백만m³의 배토 운반을 위해 현재 9개사가 참여하고 있음
- 마리나는 바다 반대편에 위치하기 때문에 마리나로 향하는 선박은 The Line 빌딩을 통과함. 다만 500m 높이의 빌딩을 통과하기 위해 필요한 165m 폭의 수로가 주요 엔지니어링 과제로 남아있음
- 업계에서는 마리나 모듈 공사의 우선 추진으로 The Spine의 일부 프로젝트 공사 진행에 차질이 있다고 밝혔으며, 네옴측이 관련 답변을 피하고 있다 전함
- 공사가 일시 중단된 것으로 알려진 지역은 Coastal Desert West, Coastal Desert East, Delta Junction, Upper Valley 등이며, 마리나, 산악 러닝터널*, 커넥터** 구간의 공사는 지속 추진될 예정

* 2022.6월 Sajco, China State Construction Engineering Corporation, FCC Construction 컨소시엄은 산악 러닝터널 프로젝트의 lots 2, 3를 27억불에 수주했으며, Archirodon, 삼성물산,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lots 4, 5를 18억불에 수주

** 2023.5월 Webuild, Sajco 컨소시엄이 The line을 옥사곤과 연결하는 Connector South 철도 노선 건설을 20억불에 수주

○ **아랍코, 자푸라 가스 프로젝트 추진 동향**^(MEED, 4.3)

- 아랍코, 20억~25억불 규모로 추정되는 자푸라 가스 프로젝트 4단계에 대한 Sol (Solicitation of Interest)를 공고
- 자푸라 분지는 17,000km² 면적에 달하는 중동 최대 규모의 액체가 풍부한 (liquid-rich) 셰일 가스전으로, 향후 10년 내 사우디는 세계

3위의 천연가스 생산국이 될 것으로 예상됨

- 자푸라 가스 프로젝트는 아랍코의 장기 가스생산 전략의 핵심 요소로 ' 20.2월 아랍코는 장기적 개발을 위해 사우디 정부로부터 1,100억불의 투자 지원을 받기로 함
- 아랍코는 자푸라의 전체 투자가 1,000억불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하며, 초기 10년간의 자본지출은 680억불에 달할 것으로 예상
- '21.11월 아랍코는 100억불 규모의 EPC 계약 체결로 자푸라 가스전 개발에 착수, 1단계 개발의 일환으로 가스 플랜트, 가스 압축 시설, 인프라 및 관련 시설에 대한 EPC 계약 16건을 체결함
- 또한 지난해 9월 약 100억불 규모의 2단계 확장 프로젝트의 5개 주요 EPC 패키지 계약자를 선정했으며 올해 초 5억불 규모의 자푸라 가스 압축 플랜트 프로젝트 3단계의 EPC 입찰을 공고함. 입찰 마감은 4월 말이며 3단계의 FEED는 Wood Group이 수주
- MEED Projects는 다음 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함.

- 삼성 E&A(한국)
- 현대건설(한국)
- Saipem(이탈리아)
- Tecnimont(이탈리아)
- GS건설(한국)
- Sinopec(중국)
- Tecnicas Reunidas(스페인)
- Larsen & Toubro(인도)
- JGC Corporation(일본)

○ **네옴 국제공항 추진 동향**^(MEED, 4.3)

- 네옴은 타북에 위치한 네옴 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PQ를 3월에 공고하고 4월 중순까지 접수할 예정
- 네옴 국제공항은 The Line의 끝단인 타북과 가까운 지역에 건설될 예정이며, 이는 2019년부터 상업 항공편을 운영하는 네옴 베이 공항과 별개의 프로젝트임
- 아직 미확정이나 공항은 단계적 개발을 추진하여, 1단계는 연간 2,500만명, 2단계는 연간 5천만명 승객을 처리하고, 향후 연간 1

억명까지 승객 처리가 가능한 세계 최대 규모의 공항으로 발돋움하는 것이 목표

- 미국의 Aecom은 지난해 3월 동 공항의 마스터플랜, 설계 및 건설을 위한 PMC와 시운전, 운영준비 등을 포함하는 계약을 수주함
- 사우디는 향후 항공 분야에 1,000억불을 투자할 계획이며, General Authority of Civil Aviation (Gaca)의 발표에 따르면, 리야드의 항공 전략은 2030년까지 ①사우디의 연간 여객 수송량 3.3억 명까지 3배 증가, ②항공 화물 운송량 450만 톤까지 확대, ③전체 연결 취항지 250개 이상 추진을 목표로 함
- 이를 위해 세계 최대 규모의 공항이 될 리야드의 킹 살만 국제 공항 프로젝트도 진행 중으로 현재 업체의 컨소시엄 구성 단계